



2016년 제4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 제4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변경, 2017년 시행 계획(안) 수립, 2017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 심의에 대한 『2016년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임.

개 요

- 일 시 : 2016. 12. 6.(화) 08:00 ~ 09:2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석인원 : 총 45명
 - ▶ 대표협의체 위원 : 28명중 20명 참석 (71.43%)
 - 참석위원 : 20명
박진희, 윤학수, 이종성, 주승훈, 강근수, 김춘길, 이용호, 장원자, 박승자, 김효진, 서덕원, 박종아, 이현상, 심은자, 최서영, 유혜영, 민소영, 신재권, 김혜경, 김창범
 - ※ 미참석위원 : 8명
염태영, 권혁, 김진수, 서태원, 양진하, 유재광, 이성진, 하경희
-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사업부서 : 17명
 - 김순애, 안효상, 구교영, 임유정, 신철승, 홍명숙, 이금우, 안병철, 임화선, 조명원, 전재현, 이원복, 김정완, 김근태, 김희애, 김재현, 박세준
- ▶ 사회복지과 : 심정애, 황호성, 김충영 3명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윤범, 이주미, 김기강 5명

주요내용

1. 안건심의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안)
- 2017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

2. 보고사항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위원변동 사항 등

3. 수원시 공유복지모형 모색 연구 추진사항 보고

-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회의결과

1. 안건심의

1)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변경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의결
- 주요내용
- 총괄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16년도		증 감	증감율	비 고
	당초계획	변경계획			
사업건수	72	74	2	2.8%	○ ‘1-6 여성전문인력 양성’ 세세부사업 2개를 분리 (1-6, 1-11)
사업예산	63,121,593	65,039,402	1,917,809	3.0%	

⇒ 변경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수준 변경임.

• 11개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변경사항

중점추진사업	2016년도 시행계획						주요 증감내역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현황			
	세부 사업수	추진사업비	세부 사업수	추진사업비	세부 사업수	추진사업비		
계	72	63,121,593	74	65,039,402	2	1,917,809		
1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9	12,372,228	10	12,494,779	1	122,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1-4, 1-8 : 국도비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변경 ◦1-5, 1-11 목표수준 변경
2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7	2,810,888	7	2,829,523	0	18,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2-3, 2-7 예산 변경 ◦2-5 세세부사업 2개 통합
3	돌봄 서비스체계를 통한 복지욕구 충족	14	30,584,151	15	31,176,901	1	592,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 3-3, 3-4, 3-5, 3-7 목표 변경 ◦3-9 예산 및 목표 변경 ◦3-10, 3-11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4	주거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 안정	3	40,000	3	40,000	0	0	◦변경사항 없음
5	안전한 생활공간 기반 마련	4	675,340	4	676,040	0	700	◦5-2 민간사업비 추가에 따른 예산변경
6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9	1,590,968	9	1,952,900	0	361,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 6-6, 6-8, 목표 변경 ◦6-4, 6-9 예산 변경
7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	8	2,658,600	8	3,273,600	0	6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7 예산 변경 ◦7-10 목표 변경
8	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7	7,049,209	7	7,200,582	0	151,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 8-3, 8-8 목표변경 ◦8-4 예산 변경 ◦8-7 예산, 목표 변경
9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복지 실현	3	488,800	3	485,800	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 9-3 예산 변경 ◦9-4 목표변경
10	전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	1,704,463	6	1,755,877	0	51,414	◦10-3, 10-5 예산 변경
11	주민중심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충	2	3,146,946	2	3,153,400	0	6,454	◦11-1 예산 변경

○ 논의내용 : 의견 없음

2)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의결

○ 주요내용

• 추진사업 : 5대 분야별 추진전략, 11대 중점추진사업, 74개 세부사업

〈단위 : 개/천원〉

구 분	당초계획 중 2017년도 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증 감	증감율	비 고
사업건수	80	74	△6	△7.5	
사업예산	54,764,339	71,316,530	16,552,191	30.2	

구 분	총 계	지역사업	보편사업	비 고
사업건수	74	55	19	◦ 보편사업: 국비보조사업
사업예산	71,316,530	41,719,544	29,596,986	◦ 지역사업: 도비 및 시비사업

•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중점추진사업	2017년도						당초계획 대비 변경사항
	당초계획(A)		시행계획(B)		증감현황(B-A)		
	사업수	추진사업비	사업수	추진사업비	사업수	추진사업비	
계	80	54,764,339	74	71,316,530	△6	16,552,191	
1.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10	12,869,418	10	11,715,101	0	△1,154,317	◦1-6 여성취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사업 분리 ⇒1-6 여성취업지원(일자리정책과) ⇒1-11 여성전문인력 양성(여성정책과) ◦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사업 폐지(2016년)
2.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7	2,982,360	7	2,004,100	0	△978,260	◦2-5 임신부건강챙기기 프로젝트 사업 등 예산 감소
3. 돌봄 서비스체계를 통한 복지 욕구 충족	15	27,892,651	15	35,620,909	0	7,728,258	◦3-3 거점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전문성 강화 예산 확보 ◦3-4 시간연장형 및 장애아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 3-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정적인 운영, 3-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등 예산 증가
4. 주거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3	200,000	3	330,000	0	130,000	◦4-3 주거복지센터운영 운영 등 예산 증가
5.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	5	402,800	4	624,054	△1	221,254	◦5-4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예산 증가 ◦5-5 휴대용안전지킴이서비스 사업종료에 따른 폐지(2016년)
6. 사회적 약자 인권 강화	9	1,959,033	9	1,898,662	0	△60,371	◦6-1 인권상담센터 사업 등 예산 감소

중점추진사업	2017년도						당초계획 대비 변경사항
	당초계획(A)		시행계획(B)		증감현황(B-A)		
	사업수	추진사업비	사업수	추진사업비	사업수	추진사업비	
7.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	10	4,255,100	8	3,508,100	△2	△74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교육 사업 폐지(2017년) ⇒각 구청 및 주민센터 직접 사업 수행 ◦7-11 수원시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연구(2017년 신설) ◦7-3 평생학습시범동 만들기 2016년 사업 종료에 따른 폐지(2016년) ◦7-9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 사업 폐지(2016년)
8. 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8	2,199,585	7	8,060,698	△1	5,86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8-7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문화바우처사업 활성화) 등 예산 증가 ◦8-1 동아리 활동을 통한 노인문화공연 사업 예산 미확보로 폐지(2015년)
9.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복지 실현	4	263,500	3	317,600	△1	54,100	◦9-1 복지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 폐지(2015년)
10. 전문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6	1,618,228	6	1,107,116	0	△51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 지역기반 사례관리 세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감소 ⇒10-4-2 통합사례관리사운영(국도비, 인건비) ⇨ 통합사례관리 운영(시비, 동복지허브화추진 통합사례관리비)
11.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확충	3	121,664	2	6,130,190	△1	6,008,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2 독거노인 종합돌봄DB관리사업 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폐지(2016년) ◦11-3 팔달구노인복지관 건립 예산 포함

○ 논의내용

이 름	내 용
김효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수립 관련해서 사업건수는 줄었으나 예산이 증가된 세부내용 설명 요청.
황호성 (복지자원관리팀장)	◦ 정책 현안 의 변화에 따라 감소된 것도 있으나,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신재권 (월드비전경기지역본부장)	◦ 저소득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긴급지원 예산이 계획안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표기되는 것인지 질의
임유정 (휴먼복지지원팀장)	◦ 긴급지원사업은 저소득지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박진희 (공동위원장)	◦ 수원시 복지예산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많이 있음.
모 두	◦ 동의, 제청
박진희 (공동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 선포

3) 2017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 · 의결

○ 주요내용

• 목 적

- 민관협력과 사회복지시설(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안 과제 발굴을 통한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을 상위 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함으로써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선정기준(안)

구 분		배점기준		비고
배점 기준		100점 만점		
선정기준점		70점 이상		
배 점 기 준	총 점	100		
	지역현안 사업	20	○ 계획 내용이 지역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사업 여부(1점~8점)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참여도(1점~6점) ○ 사업계획 내용이 주민 욕구 등 객관성 있는 지표와 함께 제시 되는 등 계획의 구체성 정도(1점~6점)	
	파급효과 (주민복지 기여도)	20	○ 사업목적의 적절성, 파급성 및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어느 정도 유익한지 ? (1~10점) ○ 지역주민의 수혜 및 사회적 편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1~10점)	
	실 현 가능성	20	○ 사업성과 실현가능한 척도(목표)의 적절성 여부(1~5점) ○ 참여하는 위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1~5점) ○ 사업규모 내용 자원확보(공공·민간)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1~5점) ○ 향후 우수모델 발전 가능성(1~5점)	
	연계협력 활성화	20	○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정도(1점~8점) ○ 참여하는 분과위원의 업무 다양성(1점~6점) ○ 타 사회복지 유관 기관 연계 협력 여부(1점~6점) → 분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	
	시책사업 준수 수	20	○ 정부정책 및 수원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정도(1점~8점) ○ 공적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여부(1점~6점) ○ 공공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1점~6점)	

○ 논의내용

이 름	내 용
박진희 (공동위원장)	○ 안전으로 상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 요청.
김충영 (복지자원관리팀 주무관)	○ 내년 실무분과 사업에 대해 시책사업, 지역현황 반영 등 실무 협의체에서 검토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선정지표 마련함. 70점 이상 추진, 70~50점 보완, 50점 미만은 재검토하여 추진.
박진희 (공동위원장)	○ 2015년까지 실무분과별로 1백만원 정도씩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예산이 6백만원으로 12개 분과별로 다 할 수 없어서 심사 통해 6개 분과만 지원하였음. 분과별로 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주승훈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장)	○ 실무분과에서 치열하게 제안한 것이 시행되므로, 계획 대비 결과 평가 등 평가과정을 보완하여 가점 배점을 제안함.
황호성 (복지자원관리팀장)	○ 가점 배정이 신규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듦. ○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겠음.
김충영 (복지자원관리팀 주무관)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일리있으나, 선정기준을 올해 처음 만든것이므로 시행해보고 내년에 보완해서 반영토록 하겠음.
박진희 (공동위원장)	○ 선정지표에는 없으나 정성평가에 반영 가능.
이종성 (실무협의체 위원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은 분과 활성화 활동 중 하나임. 분과 사업의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므로 선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방향을 제안함. 평가는 우수분과제도를 개선하여 가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임.
박진희 (공동위원장)	○ 실무분과 공동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생각하는 입장과 민관협력 활성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 존재. ○ 보조금의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고민속에서 나름 선정심사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이라 생각됨. ○ 실무분과 매월 1회 회의 진행. 실무분과는 계획 수립 및 평가 모니터링 등 기본이 마련되어 올라오는 등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는 참여 위원에게 격려 필요하므로 참고 필요.
황호성 (복지자원관리팀장)	○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하는 것은 변함없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검증, 개선될 부분 개선. ○ 민관협력 관련해서 조례 개정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있음. 시 협의체 위원 동협의체에 몇 분 참여하고 있는지?

이 름	내 용
박창재 (사무국장)	○ 동협의체 전체 위원 560명 정도이며, 시협의체 위원은 23명 참여하고 있음. 현재 사무국 등 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과 등 홍보를 통해 확대 예정임.
박창재 (사무국장)	○ 올해 민관협력 공동사업이 5월 경 조금 늦게 시작하여 짧은 시간 안에 성과 만들기 어려움 있었음. ○ 내년에는 가능하면 1차 대표협의체 회의시 선정, 3월 중에 시행하려고 담당주무관이 기준안을 급하게 마련하게되어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조율하지 못함. 차기 대표회의 전까지 TFT회의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진희 (공동위원장)	○ 2017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에 대한 가부 의견 물음. ○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지표에 넣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정성평가를 통해 가감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됨.
모 두	○ 동의, 제청
박진희 (공동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 선포

2. 보고사항

○ 주요내용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위원변동 사항 등

○ 논의내용 : 의견 없음

3. 기타 논의사항

○ 사회보장영역 확대에 따른 협의체 조직,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위 확대 준비 필요 (강근수 위원)

- 주거, 일자리, 건강, 돌봄 등 생활복지영역과 여유아, 아동, 노인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내용이 교차적으로 적용 필요
- 지속가능 목표 등 타 단체 및 지표들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동 방

안 고민 필요

- 중앙부처 여러 행정영역을 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으나 물리적·권한적 한계 존재. 제4기 보장계획 수립시 공동협력 방안 마련 필요.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관련, 시-동 협의체간 관계에 대해 수원시에서 생각하는 관계 모습에 대해 질의 (민소영 위원)
- 금년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공동모금회, 상담소통기법, 주민조직화 등 순회교육 추진하였으며, 핵심리더 교육 및 타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함. 활동결과보고때 자세히 보고 예정임.

4. 공유복지연구 추진사항 보고

-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공유복지연구 책임연구)

참고자료

- 1) 관련사진
- 2) 회의록
- 3) 녹취록

【참고자료 1. 관련사진】

2016년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사진



【참고자료 2. 회의록】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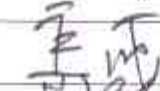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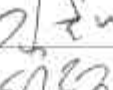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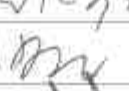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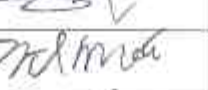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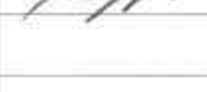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

일 시	2016. 12. 6(화), 08:00 ~ 09:20			
장 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참 석 자	총 19 명 박진희, 윤하수, 이종성, 주승훈, 강민수, 김준길, 이철, 자원자, 박승자, 김희진, 서덕현, 박종아, 이현상, 심은자, 유혜영, 민소영, 신재민, 김혜경, 김창범			
회의주제 및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위원변동사항 안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안) 2017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 수원시 공유복지모형 모색 연구 추진사항 보고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안대로 심의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안대로 심의 2017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안대로 심의 			
확인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박진희		
	부위원장	윤하수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

구분	성명	서명	비고
복 안	이종성		
	주승훈		
	강근우		
	김현준		
	이용호		
	장유진		
	백승라		
	김혜경		
	김효진		
	이대원		
	백지은		
	이현상		
	신은지		
	진시영		
	유혜영		
	이현우		
	신재원		
	김창범		

【참고자료 3. 녹취록】

2016년 제4차 대표협의체회의 녹취록

○ 안전심의

1) 2016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 김효진 : 수립 관련 회의서류 10페이지를 보면 사업건수는 줄었으나 예산이 증가되었음.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 황호성 : 정책 현안의 변화에 따라 감소된 것도 있으나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박진희 :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은 되는데, 모니터링 결과에 있어서 사업 수행의 가치, 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과감히 사업을 제외한 경우가 6개가 있고 ... 사업량은 줄었지만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보임. 그래도 세금관련해서 복지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것에는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박진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모 두 : 없음. 동의, 제청.
- 박진희 : 2016년도 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안)

- 박진희 : 의견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람. 조금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10쪽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신재권 : 긴급복지 관련해서 저소득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긴급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황호성 : 질문과 관련하여 임유정팀장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임유정 : 긴급지원은 이 사업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은 저소득지원의 보편적 사업으로서 지금 시행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박진희 : 복지예산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있는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지. 2017년도 시행계획이 통과되더라도 모니터링결과에 의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권고할 사항이 아니시라면 동의 제청 해주시기 요청합니다.
- 모 두 : 동의, 제청

- 박진희 : 2017년도 시행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 박진희 : 오늘 시의회 준비 등으로 배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퇴장하셔도 됩니다.
- 박진희 : 오늘 같은 회의 진행을 보고 팀장님들이 대표협의체회의의 별로 참석할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 어쩔까 갑자기 걱정도 되는데요, 복지여성국장님 그렇지는 않은거죠?
- 김창범 :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 2017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기준

- 박진희 : 자료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안전으로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 황호성 : 담당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충영 :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지난함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실무분과별로 백만원씩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사업비가 전체 6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공고사업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 타당성부분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내년부터는 실무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시책사업이나 지역현황사업이 긴급성을 띄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상위부서인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실무분과사업이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선정지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정지표는 지역현안사업,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연계협력활성화, 시책사업준수로 나뉘고 나뉘진 부분에 따라서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선정 기준점을 70점으로 잡았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70~50점이면 보완하여 추진하고, 50점 미만은 재검토하여 추진하므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박진희 : 여기 계시는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잘 모를수도 있는 것 같아서 배경 설명 부탁을 드렸구요, 실무분과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2015년까지는 분과별로 1년에 백만원정도씩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예를들면 선진지견학, 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들을 해왔는데 2016년에는 예산이 6백만원 12개 분과별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심사를 통해서 제안공모를 받고 심의를 해서 6개 분과에게만 지원했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니 선정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분과별 백만원으로 확대하면 이런 심사기준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과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초전의 의미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체 분과에 지원이 어

려우므로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마련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바랍니다.

- 주승훈 : 실무분과에서 치열하게 제안해서 선정된 것이 시행이 되는데, 2016년에도 여러 분과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제출된 전년도 실적들이 있을것입니다. 계획 대비 결과물이 좋지않았다던가, 결과물과 평가가 좋게 나온다던가할텐데 평가과정이 보완되서 가점 배점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호성 : 그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가점의 영향이 신규사업에 까지 미치는 것은 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충영 : 보충설명. 주승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있고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처음 만든것이므로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승훈 : 네
- 박진희 : 지표상에는 없지만 정성평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종성 :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자면,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은 실무분과 활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활동중에 한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은 실무분과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분과 사업 당 오백만원, 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각 실무분과에서도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담아내는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해서 추진 후 평가를 통해 보완점 검토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수분과 제도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각 분과별로 백만원을 준다고해서 그 백만원에 맞춰서 형식적 계획을 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그렇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전에 각 실무분과에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인지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그 다음해에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희 :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과 관의 차이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민과 관련한 현안이 관련한 타당성, 효과성, 객관성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민의 입장에서는 민관 분과 활동이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관 협력의 활성화

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각 차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보조금의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나름대로 선정 심사 기준까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이 고민하는 적극적인 분과 활성화라던가 민관 분과위원의 활동에 힘이 되는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산이 자꾸 감소되지만

실무분과가 매월 1회씩 회의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실무분과에서 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모니터링 등 기본이 마련되서 올라오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황호성 : 네. 실무협의체 위원장님들의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을 다룸에 있어서 모든 최종 결정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껏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특히 민관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기 정착을 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금년에 동복지허브화사업을 13개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동협의체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검증되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 회의때 하경희교수님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동협의체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 임복희팀장님 대표·실무협의체의 위원님들이 동협의체에 몇분이나 참여하고 계시고, 희망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 박창재 : 현재 동협의체 전체 위원이 560명 정도되는데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중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23명 정도 되고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지역사회와 연계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사무국부터해서 각 동에 배정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각 분과 등 홍보를 통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황호성 : 위원님들께 동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사무국 박창재국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해당 동 또는 원하는 지역에 동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 얘기가 조금 다른 길로 나갔는데, 안건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부분이었고 동 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라 민관협력 공동사업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박창재 :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올해 민관협력 공동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접수, 선정하여 시행하다보니 5월부터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각 분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1차 대표협의체회의때 모든 것을 선정하고, 2월 중에, 바로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보니 담당 주무관도 선정 기준안을 급하게 하다보니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및 실무분과장님하고 최종 조율한 부분은 아니어서 차기 실무협의체 전까지 담당부서 주무관과 실무협의체위원장님, 실무분과장님들 TFT를 구성한다던지, 임원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차기 대표협의체때 최종 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때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 시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안건으로 올라온 2017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 심사 기준(안)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위원님들께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기존 늦게 시작해서 절차가 어려웠다면, 2017년에는 일찍 시작해서 하도록 하는것이고, 선정기준안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 박진희 :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사업에서 혹시 2017년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정성평가에서 가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두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2017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선정심사 기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박진희 :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이종성 실무협의체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성 : 그간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 박진희 : 간략하게 보고해주셨고, 1페이지에 추진실적이 간략하게 표로 작성되어 있어서 더 눈에 띄는 듯 합니다. 오늘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참석으로 인해 참석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오늘 이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는 회의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타논의

- 강근수 : 안건이 모두 끝난 듯하여, 평소에 생각했다가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생각했던 내용들 말씀드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후의 계획을 하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신재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 지역사회보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 전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동북지허브화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되는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2015년~2018년까지 절반이 지난 시점이라 추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지금 흐름들이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생활복지 영역을 건드려줘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지난번부터 예를들면 영역별 분과 구성이 어떻게 돼야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생활복지영역인 주거, 일자리, 건강, 돌봄, 나눔, 교육, 문화, 안전, 인권, 환경 등 예전의 주민생활 8대 영역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동과 시 차원에서 갭이 생기다보면 사회배려 계층별로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생활복지영역과 사회배려계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이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영역이 전영역 플러스 혁신 등을 포함하려면 예산도 전체 플러스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도 나와계시지만 복지라는 말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거버넌스인데 거기에도 10대 행동의제라던가, 시정이 지속가능발전 SDS 2030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시정이 전환된다고 하는데 복지계획이 그것과 무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혹시 만약에 크게 홀트러뜨리지 못한다면 2018년 이후에 4기 계획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희 : 이런 고민을 전체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하고계셨던 것 같습니다. 3기 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이므로 2014년에 수립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복지 영역에서라기 보다 보장이라는 큰 범위로 확대된다고 볼 때 신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 수원시 복지계획에 국민기초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여부를 볼 때 이것이 복지냐, 보장이나 범위가 이제는 고민이 될 것 같구요. 또 지속가능협의체에서도 복지라는 영역을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따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느냐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국 차원에서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충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2018년까지 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고민들은 워크숍이나 관계자, 협의체 위원들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시민의 복지분야를 같이 건드리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과 대표협의체 위원님들도

다른 분야에서 참여하시면서 얻게되는 이런 자료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과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하며, 담당 국장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창범 : 가장 어려운 것이 중앙부처 행정 영역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환경쪽에서 지속가능과 관련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각 부처를 통합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각 부처에서 이행되는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 권한의 범위 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부처간의 한계 있음. 우리 뿐 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3기 계획이 끝나고 4기때 좋은 대안이 나와서 협의된 공동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진희 : 부처간의 일, 중앙과 지방의 일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할수도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계획이 2019년부터 2022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2017년에 조금은 고민을 하고, 2018년에는 적어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와서 4기계획에는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활동들을 여러분들께 기대를 합니다.
- 민소영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내용 중에 시와 동 협의체간에 관계라고 하셔서 관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지, 수원시에서 재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수원시에서 생각하는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황호성 : 컨설팅은 금년에는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순회교육 - 공동모금회, 상담소 통기법, 주민조직화 세가지 교육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협의체의 김기강간사님과 관계 강사가 가서 강의도 하고 기법도 가르키는 교육을 하고 있구요, 동주민복지협의체 핵심리더들에게 지역을 어떻게 이끌것인가에 대해서 운영 교육, 타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활동보고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희 : 이해되셨나요? 연계라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연계는 시협의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서 각 동협의체가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담당 간사를 채용해서 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사례관리, 모금 자원발굴 등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컨설팅해주는 부분을 연계,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진희 ;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에는 한분한분께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더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복지 연구 추진사항 보고
- 한연주 시정연구원 연구원
- 질의내용 : 없음